

百弗庵 崔興遠 詩의 道學文學的 樣相과 特性

金 榮 淑*

• 目 次 •

- | | |
|----------------|--------------|
| 1. 序言 | 3.3 正心과 中心 |
| 2. 백불암의 詩觀 | 3.4 物外와 謀道 |
| 3. 詩의 道學文學的 樣相 | 3.5 孝友와 敦睦 |
| 3.1 三非와 三難 | 4. 시의 道學的 特性 |
| 3.2 仁義와 性情 | 5. 結語 |

1. 序 言

‘朝鮮人才半在於嶺南’¹⁾이란 말이 있듯이 영남에는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다. 따라서 그 인재들은 많은 전적을 남겼다. 이 전적 가운데는 한문학 자료인 문집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영남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과적이며 능률적일 수 있다. 영남의 한문학 연구는 영남의 한문학 작가의 성격과 관련된다. 영남의 한문학 작가들은 영남 전체 학자들의 性格, 學風, 思想, 師友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한문학 작가라고 해서 철학, 역사와 분리하여 연구 할 수 없다. 특히 영남 한문학은 더욱 그러하다. 이런 면에서 영남 한문학의 특성은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사학, 철학의 공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하려면 작가(학자)를 중심으로, 작가가 남긴 전적을 대상으로 분야별 연구를 한 후, 한 곳에서 종합적인 발표와 토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모든 연구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획연

* 慶山大學校 教授

1) 李重煥, 『澤里志』, 「慶尙道」편

구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영남의 작가를 대상으로 한 기획연구는 여러 번 진행되었다. 孤雲, 佔畢齋, 濯纓, 晦齋, 退溪, 南冥, 鶴峯, 西厓, 寒岡, 黔澗·可畦, 葛庵, 密庵, 霽山, 大山, 등이다. 이번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의 百弗庵에 대한 기획 발표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본다.

百弗庵 崔興遠(1705·숙종31—1786·정조10)은 평생을 성리학으로 일관한 도학자요 문인이다. 이에 대한 문학적 연구는 1편²⁾이 있을 정도이기에 본고에서는 百弗庵 시의 도학 문학적 성격을 고찰코자 한다. 연보, 행장, 실기에 『小學』, 『大學』, 『孟子』, 『太極圖說』, 『二程全書』, 『近思錄』, 『西銘』, 『性理大全』, 『心經』 등을 깊이 탐구했다고 강조되어 있고, 편지, 언행록에서도 이런 면이 나타나 있으며, 敬牌를 벽에 걸어 놓고 主敬에 힘썼으며, 小退溪라 불리우는 大山과의 밀접한 교유를 했고, 특히 詩 作品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도학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따라서 백불암 시의 도학 문학적 양상과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연구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백불암의 詩觀

백불암이 시에 대해 특별히 논설했거나 詩論이나 文論을 쓴 것은 없다. 시 속에서 짧게나마 언급한 것이 있고 子姪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언급한 부분이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백불암의 시관을 정리한다. 시에 대한 논설이 아니고 학문을 권면하면서 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글이기에 지나쳐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백불암처럼 많은 글을 남기지 않은 작가를 연구하는데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강조한 사항별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2) 金周漢, 「百弗庵 崔興遠의 文學世界」, 『韓民族語文學』, 韓民族語文學會, 1999.6

○ 無技巧

崔興建을 智妙모임에 보낼 때 지어준 작품에서 '須勿工於詞'라 하여 공교롭게 보이도록 시를 짓지 말라고 하며 程子の 경계까지 덧붙였다. 뒤에서 작품인용을 하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勿工'은 공교롭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이다. 시를 지움에 공교를 부리지 말라는 주장은 백불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공교는 기교와 통하는 말로 주로 고문을 숭상하고 시에 있어서 天機를 중시한 고문파에 의해 주장되었다.³⁾ 시를 공교롭게 지으려는 것은 조탁과 단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중히 여기다가보면 진실한 생각을 해치기에 공교를 금지했던 것이다.

시에서의 기교는 형식 및 표현과도 관련이 있게 마련인데 이는 모두 외형적인 것이므로 외형을 중히 여기다보면 가식이 되기 쉽고 내면이 소홀하게 된다. 유학의 경전을 읽고 이를 실천하는 백불암에게는 공교로운 시, 조탁된 시, 외형만 아름답게 꾸민 시가 좋게 보일 리가 없다. 도학자들에게는 시 뿐만 아니라 학문 자체를 남에게 보이거나 남에게 알리기 위한 口耳之學을 배격하고 修身을 통한 실행을 힘쓰는 爲己之學을 지향했기에 외형을 중시하는 공교로운 시를 배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시에 대한 생각은 도학자들의 공통적인 것이기도 했기에 백불암의 시관은 도학적 시관이라 하겠다.

○ 有古色志氣

백불암은 시에는 고색지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녔다. 아들 周鎭이 지어 보낸 시를 보고 周鎭에게 답한 편지에서, 周鎭의 시에 古色, 志氣가 없음을 꾸중하고 있다. 처음 보낸 시를 보고 고색이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과거시를 많이 외워 그러니 『小學』을 외우고 古人들의 用心, 行己를 사모하여 몸에 베이

3) 시의 형식과 기교를 부정한 고문파로는 申維翰, 崔成大를 들 수 있다.

도록 하라고 했다.4) 두 번째 보낸 시를 보고도 하나같이 고색, 지기가 없다고 했다. 그 이유로 전일에 입과 귀로 익히는 학습만 했고 조금도 마음에 체득함이 없다고 훈계하는 편지를 보냈다.5) 이를 볼 때 古色, 志氣란 고인들의 용심, 행지가 담긴 내용으로서 時文이 아닌 옛스러움이 나타난 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옛스러움의 시는 고풍의 고시가 되겠다. 고시는 형식이나 표현에서 근체시보다 자유롭고 활달하기에 근체시를 선호했다고 보겠으나 백불암의 작품에는 고시가 적기에 반드시 고시를 선호했다고 볼 수도 없다. 백불암이 말한 古色은 형식이나 표현이 아닌 하나의 風格으로 볼 수 있지만 고인들의 용심, 행지의 내용이 담긴 시의 풍격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풍격은 형식과 내용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시풍의 격조이다. 백불암은 다만 시에 있어서 풍격을 존중하여 당시에 유행했던 기교와 조탁을 일삼는 時文을 경계했다. 한편 시에는 志氣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志는 '詩言志'로서의 志이다. 시인이 마음 속으로 나타내고자 한 뜻 즉 의지이며 기는 시에서의 氣像이다. 백불암 시에서의 志는 도학적 덕목과 실천 의지가 용해되어 여러 가지로 변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을 관련지어 보면 고인들의 마음과 행실을 몸에 익혀서 마음에 체득된 양상이 시에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不可偷襲

공부하러 가 있는 周鎭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에서의 偷襲을 삼가라고 했다. 시 공부는 혼자 할 수 있는데, 孤陋해질까봐 두렵지만 스스로라도 방법만 얻으면 남을 따라 투습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했다.6) 시에서의 투습은 많은

4) 『百弗庵文集』卷6, 「寄兒」, 前送詩看來 殊無古色 必是多誦科作之致 是欠 夜間須誦小學 慕古人用心行己而體習於身 坐必跪 語必正 勿戲謔交遊之間 惟以責善 喜聞過爲心父之責子 蓋欲勤於學而必成好人耳

5) 『百弗庵文集』卷6, 「寄兒」, 見汝前後所作 一向無古色 又無志氣可觀 必是前日所讀 只爲口耳之習이 少無體得於心者

6) 『百弗庵文集』卷6, 「答兒」, 詩工獨做 雖恐孤陋 自得向方 則似有勝於隨人偷襲之爲忍苦

시인들이 경계한 것이기에 백불암이 아들에게 타이른 것이 특이하거나 고유한 것은 아니다 일찍이 서거정은 시에서의 도습을 병으로 여겼다.⁷⁾ 백불암도 이러한 詩觀을 지녀 어린 아들이 이제 한창 시 짓기를 할 때 남의 좋은 시구를 투습하기 쉽기에 경계를 한 것이다.

○ 不徇時體

앞의 편지에서 작시 방법과 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들에 한 편을 마치고, 시의 형식은 구차하게 당시의 시체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했다.⁸⁾ 너무 많이 지으려 하지말고 노력과 정성을 들여 형식에 너무 구애되지 말라는 것이다. 時體는 당시에 많이 유행하던 시의 형태를 의미하겠는데, 형식이 까다롭고 기교를 중시하는 科文과 같은 詩體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백불암이 평생 과거를 폐하고 도학 공부만을 했기에 아들에게도 時體를 따르지 말 것을 가르쳤다. 시체는 당시에 유행했던 詩로서 18세기에 그 세를 더했던 위항시인들의 시도 포함되었고, 실학파들의 시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백불암이 은거했던 영남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시는 크게 유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時體는 科擧를 지향하는 詩體가 되겠는데 백불암이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시체를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은 아들에게도 과거 공부가 아닌 도학공부를 권면한 것으로 이해된다.

○ 一言蔽百之志

華鎭에게 답한 편지에서는 시는 진실로 읽기가 어려운데, 읊조리는 사이에 性

刻意(百弗庵集 卷6)

7) 徐居正, 『東人詩話』, 詩忌蹈襲 文章當出機杼 成一家風骨 何能共人生活耶 唐宋人多有此病

8) 『百弗庵文集』卷6, 「答兒」, 二日卒一篇 而字句程式 不必苟徇時體也(百弗庵集 卷6)

情의 바른 마음을 체험하면 한 말로 백 가지를 덮을 수 있는 뜻을 얻게 된다고 했다.9) 시와 주자서는 함께 공부하지 말고, 시를 전심해서 공부하고 난숙하게 외우고 나서 주자서를 읽으라고 한 것을 보면 문학서와 철학서를 혼독하는 것이 수학자들에게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공자가 시경 삼백편을 '一言以蔽之曰 思無邪'라 한 의미를 계승하면서 성정을 바르게 하여야 一言蔽百할 수 있는 시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백불암은 시에 있어서 성정을 중시했다. 문학에서의 性情을 중시한 것은 程子에서부터이다. 程子도 글귀에만 힘써서 다른 사람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口耳之學을 한탄했다.10) 시를 性情의 發露라고 한 성정론은 도학자들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여러 시인들이 주장한 바 있다.11) 백불암은 성정의 바른 마음을 체험하여 한 말로 백 가지의 의미를 함축시키기 위해 작품을 많이 쓰지 않았으며 시 전반에 함음된 시적 심상이 성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백불암의 성정에 관한 시관은 조선 중기 도학자들의 시관을 계승하여 작품에 구현한 실천적 시관이라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백불암은 도학적 시관을 지녔다고 하겠다.

3. 詩의 道學文學的 樣相

도학에 대한 언급은 일찍 漢代의 『論衡』 「量知」 편12), 『隋書』 「經籍志」13) 등

9) 『百弗庵文集』卷6, 「答華鎮」詩固難讀 然諷詠之間 有以驗之於吾心性情之情 則一言蔽百之志 庶幾其有得 而所謂本末之工 亦不外是矣

10) 程顥·程頤, 『二程全書』, 권18, 古之學者惟務養性情 其他則不學 今爲文者專務章句 悅人耳目 既務悅人 非俳優而何

11) 柳夢寅, 『於于野談』, 詩者 出自性情虛靈之府
李宜顯, 『陶谷集』, 「雜著」詩以道性情

12) 雖無道學 勛力材能盡於朝廷 此亦報上之效驗也

13) 蓋公能言黃老 文帝宗之 自是相傳 道學衆矣

에서 언급되었다. 논형에는 도의의 학문으로 쓰였고, 수서는 도교의 학문으로 쓰여 개념이 일치되지 않았다. 도학의 개념은 송대에 들어와서 불교나 도교에서 쓰인 도학과 달리 쓰이게 되었다. 주자의 「中庸章句序」¹⁴⁾와 『宋史』 「道學傳」¹⁵⁾에서 언급된 송대에는 정주학 또는 주자학적 문학에 토대를 두고 있어 일반적으로 孔·孟을 중심으로 한 原初儒學이나, 漢代의 훈교학, 또는 唐代의 詞章學과는 달리 송대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성리학을 주로 도학이라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청대에서는 “육경 사서의 증지를 마음 속으로 체험하여 실제 행위로 얻는 것”¹⁶⁾이라 하여 경학을 바탕으로 한 수신을 강조하였다.¹⁷⁾ 송대의 성리학을 수용하여 크게 발전시킨 조선 시대 도학자들도 송대의 도학개념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특히 율곡은 도학에 대한 개념 정리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였다.

“道學은 格物·致知로써 善을 밝히고, 誠意·正心으로 몸을 닦아, 자신에게 쌓으면 天德이 되고, 政事에 베풀면 王道가 되는 것”¹⁸⁾

이라 했다. 이는 『大學』의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을 통해 천덕과 왕도를 이루는 것으로, 광범한 도학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략하게 규정한 개념이다. 중국의 도학자들 보다 더 구체적이고 이론적 배경을 지닌 개념정리이다.

道學을 文學과 관련지어서는 도학의 중흥자라 할 수 있는 주자가 道本文末의 주장¹⁹⁾을 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貫道之文이니 載道之文이니 하여 道를 文

14) 中庸何爲而作也 子思子 憂道學之失其傳而作也

15) 道學之名 古無是也 三代盛時 天子以是道爲政教 大臣百官有司 以是道爲職業 黨庠術序師弟子 以是道爲講習 四方百姓 日用是道而不知 是故盈覆載之門 無一民一物 不被是道之澤 以遂其性 於斯時也 道學之名 何自而立哉

16) 『清學案小識』 「翼道學案」湯潛庵, 夫所謂道學者 六經四書之旨 體驗於心 躬行而有得之謂也 非經書之外 更有不傳之遺學也 故離經書而言道 此異端之所謂道也

17) 이상 도학의 의미부여에 대하여는 鄭炳連교수의 「靜庵의 道學倡明과 至治의 理念」(『儒教思想研究』2집, 유교학회, 1987)의 내용을 인용했다

18) 『栗谷全書』卷15, 「雜著」, 「東湖問答」夫道學者 格致以明乎善 誠正以修其身 蘊諸躬則爲天道 施之政則爲王道

19) 朱子, 『朱子語類』, 道者文之根本 文者道之枝葉 所以發之於文 皆道也 三代聖賢文章

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많았다.²⁰⁾ 도학문학은 도학적인 문학이니 도학적 개념을 내포한 문학이다. 載道的 문학관을 지닌 작가의 작품도 도학적 문학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작품 속에 도학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작품 속 작가의 생각이 도학적 이념을 강하게 추구한다면 도학적 문학이라 할 수 있다. 도학자라 하더라도 작품 속에 도학적 이념을 투영시키는 정도에 따라 도학적 문학의 층위는 달라진다. 필자는 율곡의 도학 개념에 입각하여, 이러한 도학사상을 드러내는 문학을 도학문학이라 규정하고 논지를 전개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백불암은 자신이 남긴 書, 言行錄 등의 저술의 내용이 주로 도학적인 것이고 시작품에도 도학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백불암의 시는 도학적 성격을 지녔다고 규정하여 그 도학문학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백불암의 시는 문집에 57편 69수가 전한다. 文集도 慶州崔氏 漆溪派 宗中에서 영인, 간행한 것과 景仁文化社 影印本 사이에는 詩, 書, 附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인문화사 영인본은 詩部에 7편 11수의 작품이 첨가되어 있다²¹⁾. 본고는 경인문화사 영인본(詩部)을 대본으로 삼는다.

형식별로 보면 5언고시 6수, 장단구 4수, 5언 절구 13수, 7언 절구 30수, 5언 율시 8수, 7언 율시 8수 등이다. 형식별로는 7언 절구가 가장 많다. 이를 통해 백불암의 시적 취향을 알 수가 있다. 우선 80여 년의 생애를 대부분 학문으로 일관한 학자로서 남긴 작품 수가 대단히 적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점은 긴 생애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자에 비해 남긴 문집의 양이 적다는 것에도 관련된다. 병화에 인물된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초간시부터 저술이 적었던

皆從此心寫出 文便是道

20) 조선시대에 載道論 및 貫道論을 주장한 사람은 鄭道傳(京山李陶隱文集序), 徐居正(東文選序), 등이다.

21) 경인문화사 영인본에 추가된 작품은 「偶吟自嘲」, 「默字吟」, 「李佑之德符豐厚志氣佳好而早忽喪偶似有戚容爲吟一絕付兒以示」, 「與任重徵諸人共講四七書」, 「聞宋戚哀奉几筵移接星山」, 「敬次陶山先生韻」, 「和裴乃誠」이며, 「諸弟分居有感而吟」의 又一首, 「白谷吟」의 장단구 일수, 「示病兒寬懷」의 又一首, 「輓克齋申公緬禮時」의 一首가 추가되어 있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백불암은 시를 짓고 문장을 쓰는, 일반 선비들이 즐겨한 저술을 좋아하지 않고 강론을 통한 체행과 실천을 중시한 학자로 이해된다. 이러한 생각을 지닌 백불암이 남긴 작품은 작가의 사상과 학문, 志趣와 세계관이 蘊蓄된 것으로 浩漭한 서정의 走筆詩나 富贍, 宏麗한 多作的 詩와는 차이가 많다. 이 점은 篇法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69수 가운데서 대부분의 편법이 4구 1편, 8구 1편의 凝縮, 整齊된 단편이다. 이런 양상은 일반 문인들의 작품 양상과 달라 백불암시의 한 특성이다. 백불암은 극도로 응축된 시, '起, 承, 轉, 結'로 이루어진 정제된 시를 취향하여 이를 인정했고, 산문성, 서사성 강한 시를 좋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시의 내용별 특성도 발견할 수 있다. 시편 대부분의 내용이 存養省察과 관련한 것이다.

작가의 주관적 서정인 獨吟類는 물론이고 次韻作에서도 도학적인 면이 강조되어 나타나 있다. 집안의 族弟, 族叔, 家弟에게 지어준 작품은 孝友, 敦睦을 위한 修行을 강조한 도학적인 면을 볼 수 있다. 시의 내용을 도학적인 덕목에 따라 분류하여 '三非와 三難', '仁義와 性情', '正心과 中心', '物外와 謀道', '孝友와 敦睦'으로 항목을 나누어 고찰한다.

3.1 三非와 三難

三非와 三難은 백불암이 작품 속에서 세 가지 잘 안되는 것과 살아오면서 어려운 세 가지를 시로 쓴 것인데, 시 전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에 가장 먼저 다룬다.

過寬不可不寬非	지나친 너그러움도 옳지 않고 너그럽지 않는 것도 안되며,
不默奚宜過默非	잠잠하지 않음이 어찌 마땅하리 지나치게 잠잠함도 안되네.
寬默欲無過不及	너그럽고 잠잠함에 지나침과 부족함이 없으려면,

惟將此理辨是非 오직 이 이치로 시비를 분별할 뿐.

1732년에 지은 것으로, 형제들이 너그럽고 잠잠하게 하려하나 절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세 번 非字를 읊어서 서로 경계한 시²²⁾이다. 景物을 제시하여 시적 자아와의 관련을 읊은 서정시가 아닌 작가의 修身과 行爲의 철학이 담긴 시이다. 상징, 비유 등의 표현이 아닌, 直敍的 표현인 賦法의 작품으로, 寬과 默의 실행을 강조하였다. 起承구에서 過寬-不寬, 不默-過默의 대응을 통해 寬默에 대한 過·不-不·過의 변화적 반복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뒤 전구에서 관묵의 실행에도 과불급이 없어야 된다고 했다. 결구에서는 過猶不及의 中道의 이치로 시비를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중도를 견지하면서 시비를 분별해야 한다고 주장한 작가의 마음은 시비를 따지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한 고민의 마음이다. 중도를 지키면서 시비를 따지면 되지만 중도를 지키는 것이 어렵기에 시비를 분별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다. 過나 不及이나 중도를 잃기는 마찬가지로이기에 中道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도학적 의식이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작가의 情懷를 읊은 것이 아닌 說理의 작품이다.

行世如今底事難	지금같은 세상살이에 무슨 일이 어려울까,
友無勝己爲仁難	나보다 나은 벗 사귀지 않으면 어질게 되기 어렵다네.
可憐責善人誰有	가련하다 착한 일 누가 권하리,
損益中間擇甚難	손익의 중간을 가려내기 어렵구나.

이 작품은 백불암의 둘째 동생 進叔의 三難字시를 차운한 것이다.²³⁾ 앞의 三非시와 같이 설리적인 면이 강한 작품이다. 세상살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진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벗 사귀기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문 자답의 방법을 택했다. 전구에서의 責善하는 친구없음을 한탄한 시상으로의 전환은 책선이 교우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임을 암시한 것으로, 결구의 損

22) 『百弗庵文集』卷1, 「兄弟欲爲寬默而亦自不易吟三非字以相戒」

23) 『百弗庵文集』卷1, 「次進叔三難字韻」

友, 益友로 이어진다. 『論語』의 '益者三友'와 '損者三友'를 떠올리며 損과 益의 중간을 가려내는 것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損益友에 대한 설명은 성현들이 했지만, 손익의 중간 즉 어디부터가 損이고 어디까지가 益인지는 각자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三非와 三難은 결과적으로 寬默의 중도를 지키지 못하고 친구 사귀에서 중도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백불암의 도학적 삶에 있어서 항상 내면적 갈등을 일으키는 과제였음이 시의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두 수의 시이지만 평생의 경험과 학문, 수신에서 얻어진 생각을 응축된 시구를 통해 보여준 것이기에 앞의 백불암의 詩觀에서 언급한 一言蔽百之志의 작품이라 하겠다.

3.2 仁義와 性情

인의와 성정은 도학의 덕목에서 중요하다. 仁과 義는 五常의 두 가지로 인간 수행에서 처음과 두 번째를 차지하는 덕목이다. 仁은 仁人, 仁者 등으로, 義는 義人, 義者 등으로 사람 앞에 붙여져, 성현의 말이나 글 속에 많이 쓰였다. 그러면서도 『孟子』 등에서는 함께 붙여, 仁義를 강조하였다. 性情도 도학자들은 性과 情을 분리해서 설명한 경우가 많으나 시인들이 詩論에서 주로 합성된 단어로 사용하였다. 어떠한 경우라도 문학의 도학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백불암의 시에서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 지 살펴 보기로 한다.

人言爾向日	사람들이 그대 떠나던 날 말하길,
投入仁義林	인의의 수풀에 들어갔다 하였네.
仁義果可學	인의를 과연 배울 수 있다면,
別恨不足深	이별의 한은 깊지 않네.
須勿工於詞	모름지기 문사에 기교 부리지 말라.
程氏戒喪心	정자가 본심 잃는다 경계했네.

叔弟인 立夫(崔興建)를 智妙 모임에 보낼 때 지은 시이다.²⁴⁾ 인의를 배우러 가서 본심을 잃지 말라고 경계한 작품으로 說理的인 면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최흥건이 간 곳은 강학을 위한 모임으로 보인다. 작품에서 중요한 詩語는 仁義와 喪心으로 도학에서의 기본 덕목이다. 일반적인 이별시에서의 주제는 別恨이고, 그 별한은 傷心으로 연결되는데, 이 시에서 작가는 인의를 배울 수만 있다면 별한은 깊지 않다고 했다. 이별해서라도 인의를 배워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제 3구에서 '과연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면'(果可學)이란 가정적 표현은 배운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의의 어려움은 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修行에 있다는 言外之意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문사에서 기교를 부리면 본심을 잃는다는 것은 뒤에서 다룰 백불암의 詩觀과도 관련된 도학적 문학관이다.

一氣由來有此生	한 기맥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태어났으니,
端宜膝下共輸誠	마땅히 슬하에서 함께 정성 바쳐야하네.
弟兄各自遵仁義	형제들이 각자 인의를 존중하면,
妻子安能動性情	처자들이 어찌 성정을 움직이리요,
往歲立夫嗟析產	지난해 입부가 분가함을 슬퍼했는데,
今年載叔又分閫	올해에는 재숙이 또 분가했네.
同居素志言何益	함께 사는 본 뜻을 말해 무엇하리,
恨未庭前植紫荊	뜰 앞에 紫荊花 심지 않은 것이 한스럽네.

여러 동생이 분가해서 삶에 느낀 바가 있어 읊은 것이다.²⁵⁾ 주제를 보면 '孝友'에 포함되겠지만, 그 실행 방법이 인의와 성정을 중시했기에 여기에서 다룬다. 형제는 同氣이기에 슬하에서 효성을 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한 뒤, 형제와 처자들이 인의와 성정을 지켜야 효우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인의가 있으면 부모를 버릴 수 없다"²⁶⁾는 『맹자』의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 동생들에게 인

24) 『百弗庵文集』卷1, 「送叔弟立夫(興建)智妙會做時文」

25) 『百弗庵文集』卷1, 「諸弟分居有感而吟」

26) 『孟子』, 「梁惠王」上, 未有仁而遺其親者也 未有義而後其君者也 王 亦曰仁義而已矣 何必曰利

의를 강조하였다. 처자들이 性情을 움직일 수 없다는 표현도 깊은 의미를 두고 한 말이다. 性情에 대해서 張載는 “마음은 性情을 통섭는 것”²⁷⁾이라 했고, 朱子는 “마음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을 性이라 하고 마음이 사물에 느껴져서 드디어 통하게 되는 것을 情”²⁸⁾이라 했다. 어느 것이나 마음에서 성정이 이루어진다고 뜻으로 이해되며 위의 시에서 성정이 움직이지 않음도 결국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마다 분가해 나가는 동생들에게 인의와 성정을 강조하고 田眞형제들이 紫荊花를 보고 재산을 합쳐 살았다는 고사를 생각하게 하여 효우를 다짐하고 있다.

仁者愛人不愛金	어진이라야 사람 사랑하고 돈 사랑하지 않으니,
愛金未必保仁心	돈 사랑하면 반드시 어진 마음 없다네.
堪嗟世上人情薄	아! 세상 인정 천박하여,
無告人來便疾深	불쌍한 사람오니 문득 미움 깊어 하더라.

지나는 나그네를 보고 느낀 점이 있어 지은 작품²⁹⁾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도 어진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일임을 전제로 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진 마음이 없다고 단정했다. 어진 것은 마음에 있어야 하고 어진 마음을 항상 지녀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성현의 가르침³⁰⁾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세상에는 인정이 천박하여 돈을 좋아하고 어진 마음을 갖는 이가 적어 무고한 사람이 오면 미워한다고 한탄했다. 제목의 과객은 작품 속의 無告人으로 보인다. 각박한 인정세태를 원망하면서 군자의 길로 啓導하려는 도학자적 심리상태가 작품 속에 투영되어 있는 說理詩이다. 이 시는 작가의 修己治人の 도학 정신과 세계관이 아울러 투영된 작품이다.

27) 張載, 『張子全書』 권14, 心統性情者也

28) 『朱子語類輯略』 권20, 夫寂然不動是性 感而遂通是情

29) 『百弗庵文集』卷1, 『見過客有感』

30) 『大學』, 唯仁人 放流之遊諸四夷 不與同中國 此爲唯仁人 爲能愛人 能惡人.

『孟子』, 『離婁』下, 孟子曰 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君子以仁存心 以禮存心 仁者愛人 有禮者敬人 愛人者人常愛之 敬人者人常敬之.

3.3 正心과 中心

정심과 중심은 사람으로서 마음가짐에 대한 도학적 덕목이다. 백불암이 수학기에 많이 읽었으며, 도학자들의 필독서였던 『소학』, 『大學』, 『심경』, 『근사록』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체이다. 백불암은 그의 언행록에서도 이 점에 대해 강조를 했고 詩作을 통해서도 중요시했다.

夢覺關頭得一覺	꿈꾸고 꿈깨는 관두에서 한 꿈깨를 얻게 되고,
鬼人關上乃爲人	귀신되고 사람되는 관상에서 이에 사람이 되네.
用心自此卻須正	마음 쓰을 이로부터 모름지기 바르게 한다면,
何患不能修是身	어찌 이몸 닦을 수 없음을 근심하리오.

1746년 42세 때 『大學』을 읽고 느낀 점을 쓴 시이다.³¹⁾ 백불암은 연보, 언행록 등을 통해 볼 때 四書 가운데서 대학을 많이 읽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독서에서 대학을 먼저 읽어야 하고 대학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讀大學箴」에 밝혔다. 이 작품은 대학의 내용에서 8조목인 '正心', '修身'을 강조한 것으로 起承轉結의 시적 전개가 뛰어난 시로 보인다. 夢·覺→鬼·人에서 正心→修身로의 도학적이면서 문학적인 시상 전개는 감화와 실천을 함께 보여준다. 景物에 따른 감흥의 情懷보다는 교훈적이며 이론적인 說理詩이다. 처음부터 關頭 關上을 중히 여겼다. 夢이 되고 覺가 되며 鬼가 되고 人이 되는 것이 關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 이 關은 하나의 關鍵을 의미한다. 用心도 이 관건에서 바른 마음으로 출발해야 하고 정심이 되면 몸이 쉽게 닦여진다고 한 것은 대학의 내용³²⁾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취에 젖게 하는 감성적인 시가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가슴에 새기게 하는 이성적인 작품이다.

31) 『百弗庵文集』卷1, 「讀大學」

32) 『大學』經文의 欲脩其身者 先正其心…意誠而后心正 心正而后身脩를 의미한다.

我愛中心好 내 중심의 좋은 점 사랑하니,
 中心便是忠 중심이 바로 충자이기 때문.
 世上忠者少 세상엔 충성한 사람 적으니,
 村名獨爲忠 마을 이름만 홀로 충을 붙였네.
 居是講是久 이곳에 살며 이를 강하기를 오래하면,
 我亦庶幾忠 나 또한 거의 忠者 되겠지.

중심 마을에 寓居하며 지은 시³³⁾이다. 中과 心을 합성하면 忠이 되기에 중심촌에 우거하며 講을 오래하면 충에 가까워지리라는 작가의 충에 대한 의지와 소원이 담긴 작품이다. 세상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적은 것을 한탄하며 마을 이름이라도 충을 의미하는 것이 있으니 다행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中心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편벽되지 않는, 가운데서 사물을 바라보는 중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중심촌이 더욱 마음에 와닿아 작가는 이를 소재로 택했다. 작가가 대상으로 삼은 중심 즉 충은 평소에 작가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었던 도학의 덕목이었다. 이것이 중심촌이란 마을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을 이름만 중심이라 했을 뿐 충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 적음을 한탄하고 있다. 忠자의 쓰임이 오래되어 글자에 대한 해석도 동일하지 않다. “남에게 선을 가르쳐 줌”을 충이라 했으나,³⁴⁾ 후대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발하여 스스로 다함”³⁵⁾ 등으로 해석하였다. 백불암도 中心 즉 속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盡心을 실천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다.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할 줄 아는 도학적인 충을 강조하였다.

此心元自活無停 이 마음 원래 움직여져 정지할 수 없으니,
 一或放之走四溟 혹시 한번이라도 놓으면 사방으로 달아나네.
 喚起惺惺看古語 깨달음 환기시켜 옛 말을 살펴보니,
 卷中如對聖人情 책속에서 성인의 마음 대하는 것 같구나.

33) 『百弗庵文集』卷1, 「寓中心村」

34) 『孟子』, 「滕文公」上, 教人以善 謂之忠

35) 『大學』, 君子有大道 必忠信以得之 驕泰以失之의 朱子註에서 ‘發己自盡爲忠’이라 하였다. 기타 四書에도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의미는 같다.

우연히 읊은 것이다.³⁶⁾ 마음은 살아서 멈추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놓으면 사방으로 달아나 견잡을 수 없기에 다잡아야 한다고 했다. 깨달음을 환기시키기 위해 옛글을 보고 책 속에서 성인의 모습을 대하며 잠시라도 放心하지 않으려는 작가의 正心을 위한 修身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다. 仁은 사람의 마음이요, 義는 사람의 길이기에, 그 길을 버리고 그 마음을 놓아버려서는 안되며 학문의 도는 바로 放心을 찾는 것이라는 옛 책 속의 성현의 가르침³⁷⁾을 되새기는 시이다. 轉·結구는 四書의 『孟子』, 『心經』, 『近思錄』 등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에 관한 책과 그 속에 담긴 성현의 가르침을 시로 나타낸 것이다. 우연히 읊은 우음에 이런 작품이 이어진다는 것은 앞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도학 공부에 몰두하고 이의 실천을 힘쓰며 마음 다스리기에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와 같은 작품이 창작될 수 없는 것이다. 시에서 일반적으로 우음은 우연히 읊는다고 하지만 작가의 깊은 내면세계를 강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백불암의 작품도 이런 경향에 부합되어 내면에 깔려 있는 도학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3.4 物外와 謀道

백불암은 때때로 세상 밖에 노닐고 싶어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그려보기도 했다. 絶景을 만나 인간 세상을 떠나 신령스러운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여 俗塵을 떨쳐버리고 싶은 욕망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마음 밑바닥에는 道를 사모하고 渴求하는 도학적 思惟를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八公山下一庵雄 팔공산 아래 한 암자 웅장한데,
 畫閣巋然上碧穹 단청누각 우뚝 푸른 하늘로 솟았네.
 落葉盡堆峯似瘠 잎이 떨어져 쌓이니 산봉우리는 살 빠진 듯,

36) 『百弗庵文集』卷1, 「偶吟」

37) 『孟子』, 「告子」上, 孟子曰 仁人心也 義人路也 舍其路而弗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 人有鷄犬放則知求之 有放心而不知求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矣

懸流爭瀉壑如巖	폭포는다튀 쏟아 골짜기가 멍멍한 듯.
從教物外新盟定	세상 밖에서 새로이 맹세하고,
卻要塵間舊染空	티끌 세상 문은 때 씻어지기 바라네.
最是靈區無限意	가장 신령스런 곳의 무한한 뜻은,
數聲鳴鶴九天通	몇마디 학울음소리 하늘로 통하누나.

산 중에서 생각이 떠올라 즉시 지은 작품이다.³⁸⁾ 위에서 예를 든 작품과 달리 感物吟志한 작품이다. 앞의 4구는 경물의 모습을 읊은 서경이다. 팔공산과 아름답게 단청을 올린 웅장한 암자, 앞이 다 떨어져 깡마른 산봉우리, 여러 줄기의 쏟아내리는 폭포수, 귀 멍멍한 산 속 분위기를 감각적, 비유적으로 묘사했다. 후4구는 앞부분의 感物에 의한 읊지이다. 잠시나마 物外에서 속진에 물든 때를 씻어보기를 바라며, 산 속의 신령스런 분위기는 학의 울음소리가 하늘까지 닿듯 군자가 숨어 있어도 세상 밖까지 알려질 듯 하다고 했다. 도학자인 작가의 서정을 보여주는 情懷的인 작품이다.

道不外乎日用間	진리는 일상생활 떠나 있지 않으니,
古人所以學無難	옛사람도 배움에 어려움이 없었으니.
事親處族如些誤	어버이 섬기고 친척 대함에 작은 잘못 있을 것 같으면,
賢聖地頭詎可攀	성현의 경지를 어찌 잡으리.

漸覺治生事	살아갈 방도를 찾는 일 점차 깨달으니,
自多累一身	이 몸 얽매임 많아지네.
何時居靜域	어느 때 조용한 곳에 살며,
謀道不憂貧	진리 찾으며 가난 걱정 없으리.

忘窩 族大父 慶濟의 운에 차운한 시³⁹⁾이다. 앞의 7언 절구는 『中庸』에 “道는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⁴⁰⁾이라 했기에, 작가는 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

38) 『百弗庵文集』卷1, 「山中卽事」

39) 景仁文化社影印本에는 앞의 작품제목이 「謹次忘窩族大父慶濟韻」, 뒤의 작품제목이 「謹次忘窩大父韻」으로 되어 있는데, 慶州崔氏漆溪派宗中 영인본에는 「謹次忘窩族大父慶濟韻」이란 제목 아래 두 작품이 게재되어 있다. 두 작품의 형식과韻이 각각 다르기에 경인문화사 영인본과 같이 별도 제목을 붙이는게 옳다고 본다.

가운 데 있으며, 어려운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 가운데 있다고 했다. 도를 공부하려면 가까운 데 있는 부모를 모시고 친척들을 대하는 것부터 법도에 맞게 해야 된다고 강조한 작품이다. 성현의 경지(道)에 가려면 먼저 부모에 효도하고 친척들과 돈목해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했다.

뒤의 5언 절구는 가난하여 살림살이 때문에 자신이 얽매여 제대로 도를 공부하지 못함을 안타까와 한 작품이다. 조용한 곳에 살면서 도를 도모하고 가난을 걱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마지막구는 『論語』의 내용⁴¹⁾을 시로 변모시킨 것으로 작가가 안빈낙도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갈등이 다소 함음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良友二三共一筵
仍將四七覓單傳
陶山正印明留鑑
閩水眞源淨似淵
若不細尋窮底地
恐難眞見本然天
願吾多病無思得
只信先生信古賢

좋은 친구 몇이서 한자리에 모여,
사단 칠정에 대해 한가지 가르침 찾네.
退溪의 바른 새김 거울처럼 밝게 남아 있고,
程子の 참다운 근원 맑기가 못과 같네.
만약 깊은 경지 자세히 찾지 못하면,
본연의 이법을 옳게 보기 어려울까 걱정되네.
내 자신 돌아보니 온갖 병으로 생각해 얻을 것 없어.
다만 선생을 믿고 옛 어진이를 믿네.

任重徵(必大)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四端七情書를 講하면서 지은 작품이다.⁴²⁾ 도학의 서적인 사단칠정서를 강론하면서 여러 가지 글 가운데서도 퇴계와 정자의 책을 통해 단전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깊은 경지를 자세히 궁구하지 못하면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걱정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이 병으로 깊이 생각해도 얻을 것이 없어 선생과 현인들이 남긴 학설을 믿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다. 선생은 퇴계를 말하고 고현은 정자를 이른 것이라 하겠다. 이 작품은 백불암의 학문적 경향이 퇴계학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주

40) 『中庸』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

41) 『論語』, 「衛靈公」, 君子謀道 不謀食 耕也 餒在其中矣 學也 祿在其中矣 君子憂道 不憂貧

42) 『百弗庵文集』卷1, 「與任重徵必大諸人共講四七書」

는 것으로 중요하다.

3.5 孝友와 敦睦

효우와 돈목은 도학에서 일차적인 덕목이다. 事親以孝와 兄友弟恭을 행신의 기본으로 삼아 돈목을 존중하였다. 백불암은 남달리 효우와 돈목을 강조했다.

身從父母受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고,
命由天地得	목숨은 천지로부터 얻었네.
孝悌具然後	효도와 공경 갖춘 후에,
仰不愧太極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움 없으리.
自恨魯且病	노둔하고 병든 것을 한탄하고,
使爾無所則	그대에게 본보기 되지 못하였네.
卒爲衆人歸	마침내 보통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昭昭也無惑	밝고 밝아 의혹이 없네.
我能友於弟	내가 동생에게 우애있게 하면,
爾能恭其伯	동생도 큰 형을 공경하겠지.
若此乃怡怡	이와 같이 하면 기쁘고 즐거울 텐데,
何必相規責	하필이면 서로 책망할까?

백불암의 둘째 동생 崔興漸 (字 進淑)의 고체시를 화답한 작품이다.⁴³⁾ 효도와 우애를 권장한 시이다.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고 목숨은 천지로부터 받았기에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공경해서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형으로서 동생이 본받을 만한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노둔하고 병든 몸으로 범인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兄友弟恭하기를 권면하고 있다. 부모에 대한 효는 宿命的이며 형제간의 우애는 상대적이라는, 孝友의 원리를 서로 노래했다.

夜來風不吹 간밤에 바람 불지 않았으니,

43) 『百弗庵文集』卷1, 「和進叔古風言志」

紫荊應葆英	박태기나무는 응당 꽃부리를 잘 보전했을 텐데.
何事庭前樹	무슨 일로 뜰앞의 나무(박태기)는,
枯槁不欲榮	시들고 말라 꽃피려 하지 않나.
自愧心力薄	스스로 부끄럽네 심력이 약해서,
培養未以誠	복돋우어 길음에 정성들이지 못한 것이.

자신의 허물을 읊은 것이다.⁴⁴⁾ 자신의 허물은 형제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데 대한 것이다. 연보에 여러 동생들이 분가해서 시를 지어서 느낀 점을 썼다고 되어 있다. 백불암은 앞의 시에서도 보았듯이 동생들이 분가해 사는 것을 자신의 큰 잘못으로 여겼다. 이 시는 자형화를 소재로 했다. 중국의 田眞 삼 형제가 재산 나누기를 의논하고 고르게 分財 후 뜰 앞의 한 그루 자형화마저 삼등분 해 갖기로 하자 나무가 시들어 죽으니, 전진이 동생들에게 '근본이 하나인 나무가 셋으로 쪼개려한다는 말을 듣고 말랐다. 사람이 나무만 못하다'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나무를 가르지 않자 나무도 그 소리에 응답해 다시 무성했다. 형제들도 서로 감동이 되어 재산을 합쳐 효도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고사⁴⁵⁾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백불암은 자신의 정성이 부족해 田眞처럼 자형화를 살려 형제가 함께 살지 못함을 허물로 여겼다. 비유와 상징으로써 간절한 우애 돈목을 권면한 작품이다.

人皆孝 我不孝	남들은 모두 효도해도 나는 효도하지 못하고,
人皆友 我不友	남들은 모두 우애있어도 나는 우애없네.
人皆賢 我獨愚	남들은 모두 어질어도 나만 홀로 어리석고,
人皆樂 我獨愁	남들은 모두 즐거워해도 나만 홀로 근심이네.
以其孝也友也賢也	효도와 우애와 어질은,
而猶或有失兮	설혹 잃은 것이 있을지라도,
顧茲不孝不友愚且愁	불효하고 우애없고 어리석고 근심있는데,
而胡不誅四十年	어찌 사십년을 벌하지 않고,

44) 『百弗庵文集』卷1, 「自咎吟」, 1774년 (영조 20년)에 지은 것인데 연보에는 이 작품을 「紫荊詩」로 기록하였다.

45) 『續齊諧記』, 京兆田眞兄弟三人 共議分財 生貨皆平均 惟堂前一株紫荊樹 共議欲破三片 明日就截之 其樹即枯死 狀如火然 眞往見之大驚 謂諸弟曰 樹本同株 聞將分斫 所以顛頽 是人不如木也 因悲不自勝 不復解樹 樹應聲榮茂 兄弟相感 合財寶 遂爲孝門

誤己又誤人兮 나를 그르치고 남도 그르쳐,
心事蹉跎曷不憂 마음먹은 일 어긋나니 어찌 근심없겠나.

자신의 허물을 읊은 것이다.⁴⁶⁾ 남과 자신을 대비해서 자신에게 허물이 많음을 부끄러워 하고 있다. 자신의 不孝, 不友, 獨愚, 獨愁에 대해 항상 남과 같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이 허물을 없애기 위해 고심한 배경을 알 수 있다. '我'와 '人皆'의 대비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남들 모두 보다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설혹 '孝', '友', '賢'에 대해 앓은 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데 '不孝', '不友', '愚且愁'하였으니 죄를 받아 마땅하다고 自責하고 있다. 자신만을 그르친 것이 아니라 남도 그르쳤고, 마음과 일이 성취되지 않고 어긋나니 하루도 근심이 없을 수 없다는 심증을 드러내고 있다. 백불암의 작품 가운데는 불효와 불우에 대해 깊이 성찰한 작품이 자주 보이는데 이 작품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장단구의 악부시체를 빌어 노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쓰여진 작품이다. 사랑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自歎의 노래, 신세 타령의 노래로서, 마음먹은 일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과 근심에 사로 잡인 自我를 自責의 노래를 통해서 自慰한 작품으로 이해된다.

4. 시의 道學的 特性

앞에서는 시의 내용에 함응된 도학적 야상을 살펴 본 것이다. 여기서는 작품의 특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백불암은 철저한 도학자였기에 그의 시는 도학 문학적 성격을 지녔고 시 속에 담긴 중심사상 역시 도학적 사상이다. 이러한 도학적 사상에 입각해서 작품을 썼기에 백불암시는 가장 큰 특성으로서 도학적 성격을 지녔음을 지적할 수 있

46) 『百弗庵文集』卷1, 「自咎吟」, 종중에서 간행한 영인본에는 실리지 않았고, 경인문화사 간행 영인본에는 註44번과 같은 題下에 실려 있다.

다. 남긴 작품 모두가 도학적 심상의 발로에 의하지 않은 것이 없다. 시의 제재 별로 보더라도 일반적인 시의 내용과 달리 도학적 사유가 강하게 기저에 깔려 있다. 「偶吟」, 「偶吟自嘲」와 같은 獨吟類에는 심성 수양, 虛靈의 境地를 추구한 면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는데 도학자인 작가의 내면 세계의 지향성으로 보아 당연한 것이다. 대부분의 시인들의 독음류에도 이와 같은 작가의 주관적인 내면의 심상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지 백불암은 도학적 세계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차운시나 증여시에서는 자신과 상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시의 내용과 품격, 주제를 유사하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백불암은 도학적 세계관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그 바탕 위에 상대와의 관계를 호전시켜 시적 표현을 하고 있다. 이 점은 앞에서 예를 든 차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도학자라고 해서 흥취와 서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백불암의 시 가운데서 가장 내면세계의 흥취를 잘 드러낸 작품은 「既望後夜花潭舟中次趙一如春慶韻」⁴⁷⁾이다. '산은 높고 고요하며 물은 빈 듯 맑은데, 바람 달 천년 동안 누가 다투었나. 적벽 아래 화담의 좋은 밤 흥취는, 모름지기 고금의 정을 분별할 수 없구나.'⁴⁸⁾에서 보듯이 백불암의 작품이 아닌 듯 정감적이고 흥취적이다. 옛날의 정감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옛날과 지금의 정감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다분히 논리적이 아닌 흥취적이다. 여기서도 도학적 사유와 교훈은 보이지 않는다. 정감적인 이 시를 받은 趙春慶 형제가 충실한 행동을 하지 못했기에 백불암은 「又用前韻戒趙一初」를 써서 趙復慶을 경계했다. '본연의 심체가 온전히 밝지 못하니, 시시비비를 누가 다투지 않으리. 그대는 모름지기 충서학을 따르기 바라네. 저 인정이 이 인정과 같다네.'⁴⁹⁾라 하여 본연의 심체를 밝게 하기 위한 공자의 도를 공부하도록 경계했다. 이 시에서는 춘경에게 지어준 작품에서 볼 수 없는 理趣의 면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47) 景仁文化社 刊行 影印本에는 詩題가 「既望後夜花潭舟中」으로 되어 있다.

48) 『百弗庵文集』卷1, 山高而靜水空明 風月千秋孰所爭 赤壁花潭良夜興 不須分別古今情

49) 『百弗庵文集』卷1, 本然心體未曾明 是是非非孰不爭 願爾須加忠恕學 彼人情似此人情

백불암시는 主情的이기 보다는 主理的인 특성을 지녔다. 앞에서 예로 든 작품 모두가 주장적이기 보다는 주리적이다. '三非와 三難'의 작품은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할 수 없었거나 어려웠던 여섯 가지를 情感的인 흥취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설명을 통한 主知的 志趣의 표현이다. 이것은 '인 의와 성정'에서도 마찬가지다. 仁義는 배워 실천하기 어렵고 인의를 존중하면 형제간의 우애를 지킬 수 있으며, 어진 사람이라야 남을 옳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핵심이다. 인 의와 성정에 대한 설명의 시이다. 막연한 설명이 아니라 성현의 명언을 함축적으로 인용한 논리적 설명이다. 함축성이 크고 의미가 심장한 표현으로 논리적 설명을 승화시킨 理趣이다. '正心과 中心'에서도 대학과 중용의 요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듯 주리적인 작품으로 議論하고 있다. '物外와 謀道'에서는 약간의 다른 면이 보이지만 그 기저에서는 마찬가지이다. 物外를 추구한 심경은 속세를 떠나 팔공산 속에서 겪은 일시적 본능적인 욕망이었을 뿐,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외를 선명한 작품은 주장적인 작품일 수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일 뿐 謀道와 관련 지우면 전체적으로 주리적인 작품이 대다수이다. '孝友와 敦睦'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간의 우애, 박태기나무의 상징을 강조하면서도 공경과 효도의 이치를 설명했다. 이 외의 시들도 감흥이나 서정을 노래하기보다는 직설적이고 논설적인 면이 강하다.

백불암 시의 또 하나의 도학적 특성은 시적 자아가 대상 속에 몰입된 것이 아니라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상의 근본 이치를 관련지어 관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적 대상을 주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막연한 외형적 관찰이 아니라 객관적 외형을 이루는 기본 이치와 관련지어 관찰했다. 「詠花」를 보면 '집 앞에 꽃떨기가 있는데 반은 피었고 반은 피지 않았다. 꽃을 희롱하는 가련한 나비 한 마리가 이미 핀 꽃만 좇아 오더라.'⁵⁰⁾는 詠物詩로서 사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핀 꽃만 찾아다니고 피지 않은 꽃은 찾아다니지 않는 나비가 가련스러워 보이는 것은 작가의 주관적 해석

50) 『百弗庵文集』卷1, 堂下花叢在 半開半未開 可憐彼戲蝶 好趁已開來

이다. 꽃이 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찾아다니는 나비, 즉 외형만 좇는 나비를 가련하게 생각하는 데서 작가의 도학적 관점을 엿볼 수 있다. 「詠梅有感」에서도 '음양이 들고 돌아 기이함을 깨달으니, 해마다 매화는 제 때에 피는구나. 인생사는 어찌 꽃이치와 다른 건가, 홀로 찬 떨기 바라보며 눈물 흘리네.'⁵¹⁾라 하였다. 매화의 삶이 榮枯盛衰를 순환하여 끊임없이 피고 지는 것과 음양이 들고 돌며 순환하는 기본 질서를 詩化하면서 인간은 그렇지 못해 슬프다고 했다. 매화와 인간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기본 이치를 대비하면서 주된 관점은 매화가 아닌 인간의 편에서 있다.

5. 結語

百弗庵 崔興遠 (1705·숙종31—1786·정조10)은 평생을 성리학으로 일관한 도학자였다. 따라서 그의 시는 도학 문학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여러 가지 도학적 양상이 나타나 있었다. 백불암은 시에 대해서, '技巧를 없앨 것, 古色, 志氣가 있을 것, 儉襲을 하지 말 것, 時體를 따르지 말 것, 한 말로 백 가지를 덮을 수 있게 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강조는 당시의 口耳之學을 배격하고 爲己之學을 지향한 도학적 문학관이라 하겠다.

백불암의 시는 57편 69수가 전하고 있는데, 5언고시 6수, 장단구 4수를 합쳐 고체시는 10수이고, 근체시는 5언 절구 13수, 7언 절구 30수, 5언 율시 8수, 7언 율시 8수 등이다. 전체 시의 경향이 편법이 짧은 短型 위주이고 율시보다 절구가 더 많아, 말을 아끼며, 필요한 말만 하는 작가의 시작 태도를 알 수 있다. 이것은 한 말로서 백 가지를 덮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작가의 詩觀이 실제 작품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51) 『百弗庵文集』卷1, 二氣消長正覺奇 梅花塞歲歲發如期 如何人事殊花事 獨向寒叢涕滿頤

시의 도학문학적 양상의 대표적인 덕목으로는 '三非와 三難', '仁義와 性情', '正心과 中心', '物外와 謀道', '孝友와 敦睦'을 들 수 있다. 三非를 나타낸 시는 작가가 생활하면서 수행의 세 가지를 강조한 것이데, 過寬과 不寬, 不默과 過默, 過와 不及을 위한 是非의 분별이다. 寬과 默에 대한 中道를 강조한 것이며, 三難의 시는 益者三友와 損者三友를 떠올리며 손과 익의 한계를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강조한 것이다. 인의와 성정을 함축한 작품에서는 인의는 배우기가 어려운 것이며, 어진 사람이라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인의가 실천이 되어야 성정을 움직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어진 사람과 돈만 좋아하는 사람의 대비를 통해, 어질지 못하고 돈만 좋아하는 당시 사람들을 계도한 작품은 修己治人の 도학 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정심과 중심의 주제를 드러낸 작품에는 『소학』, 『대학』, 『심경』, 『근사록』 등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을 詩化한 구절이 많으며, 백불암 시의 본령을 이룬다고 하겠다. 물외와 모도에 포함되는 작품에는 작가가 수신의 체행을 하면서도 때때로 절경을 만나 세상 밖에서 속진을 떨쳐버리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는가 하면, 가난을 걱정 않고 조용한 곳에서 謀道를 즐기고 싶어하는 내면적 이상이 그려져 있다. 효우와 돈목과 관련된 작품에서는 효도와 우애, 돈목이 도학실천의 근본임을 강조하며 특히 형제간의 분가를 자형화에 비유하여 가슴아프게 여긴 애절한 자아가 나타나 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작품이 四書, 『心經』, 『近思錄』 등 도학사상을 담고 있으며, 그 밀도는 작품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이 글에서 인용한 작품이 다양한 도학적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시의 도학적 특성은 작품의 내용, 표현 모두에 도학적 심상이 비쳐 있으며, 내면의 기저에는 도학적 사유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차운시나 증여시에서도 자신과 상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도 표현의 관점을 도학에 두고 있어서 과장이나 가식이 없는 진실된 교훈성을 지니고 있다. 主情的인 시이기보다는 主理的인 시라는 점도 하나의 특성이다. 흥취 위주의 서정시가 아니기에 교훈적이고 설명적이다. 감성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다. 선현들의 도학적 언행을 수용하여 詩化한 경우가 많아 타설적인 모습으로도 보인다. 또 하나의 도학적 특성은 시적 자

아가 대상 속에 몰입된 것이 아니라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상의 근본 이치를 관련지어 觀照하고 있다. 시적 대상을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하겠다.